

전남교육청, 첨단과학기술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박차

올해 51개교 50억원 투입 학생 주도 열린 탐구공간 조성 지원
학습자 중심 실험·토론 환경 구축...성과공유회 우수사례 나눔

전라남도교육청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공모사업을 시행해 초·중·고 51개교를 선정하고, 총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상 학교에는 워크숍,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형 과학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의 열린 탐구가 가능한 디지털 교구·기자재 등을 갖춰 △학생참여형 과학 수업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한 탐구 △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을 지향한다.

이번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완료한 순천금당고등학교 교실 정면에는 빔프로젝터와

화이트보드형 전자 칠판이 설치됐다. 모뎀별로 스마트 TV가 각 1대씩 총 4대가 갖춰져, 모뎀 프로젝트 발표와 토의·토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수업 중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는 개인 태블릿·노트북 등을 사용한다.

이 같은 최첨단 수업 환경 조성과 함께, 지능형 과학실은 과학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험·토론·학습·발표 등 학생 활동 중심의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지능형 과학실은 과학탐구활동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해, 단순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을 넘어 학생들이 주도하는 열린 과학탐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모은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완료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능형 과학실 선도 모델을 알리기 위해 '2023. 지능형 과학실 성과 공유회'를 가졌다.

'지능형 과학실, 공간과 수업을 잇다'를 주제로 한 성과공유회는 지난 12월 5일 벌교초를 시작으로 6일 목포하당중, 8일 광양여고 등에서 열려 지능형 과학실 구축에 관심 있는 학교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능형 과학실 추진 현황과 세부 계획, 우수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또 '지능형 과학실 ON'을 활용하는 방법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우수 수업사례를 나누면서, 지능형 과학실 '공간'과 '수업'을 어떻게 이어 나갈지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사업을 2024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 내년에는 총 25개교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이



와 함께 재미난 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학점핑학교'를 운영해 과학 교과에 대한 학생 흥미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 기자



영광 대마초, '깍두기 담그는 나눔 행사' 실시

영광 대마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뒤뜰 생태 텃밭에서 가오내 심고 가꾼 감장 무로 깍두기를 담그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지역민이자 5학년 학부모인 프로 농부에게 감장 무 씨앗을 심고 가꾸는 법을 전수 받았고, 가오내 부족했던 강수량은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이 뿌려놓은 호수 물줄기로 가득 채워 작지만 아삭한 감장 무를 길러냈다.

전날 학교 급식실에서 준비해주신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학년별로 깍두기 양념을 버무렸다. 학생들이 무를 버무리는지 무가 학생들을 버무리는지 모를 정도의 매콤한 체험이었지만 모두 준비한 김치통에 자신이 버무린 깍두기를 가득 담아갔다.

깍두기 체험에 처음 참여한 1학년 김○○ 학생은 "버무리는 동안 맛있는 냄새가 나서 입에 침이 계속 고였어요"라며 선생님이 넣어준 깍두기 한입에 엄지척을 들어 올렸다. 완성된 깍두기는 대마 교육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다들 겨울을 대비했다.

김중심 교장은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학교 텃밭활동이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더불어 직접 가꾼 무농약 유기농 채소로 김장하여 각 가정의 식탁까지 이어지는 식생활 개선교육도 함께 이루어져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다. 역할을 분담하여 열심히 참여해준 모든 대마가족들이 대견스럽다"라며 지도교사를 비롯한 모든 학생에게 감사와 칭찬 및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영광=서희권 기자

화순북면중, 전교생대상 무학년제 교과 융합수업 실시



화순북면중학교는 최근 교내 공개수업 주간에 교과별 융합수업을 실시하여 이상적인 교육 환경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융합수업은 2차시를 4교과의 교사들이 운영하였다. 기술가정, 체육, 사회, 영어 4교과가 참여하여 학생 중심의 혁신적인 수업을 이끌어냈다. 4교과의 교사들은 작은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한 수

작은 학교의 특색 살린 융합수업 통한 이상적인 교육 환경 구축

업을 운영하기 위해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해왔다.

이번 융합수업은 미래 사회의 핵심 사안인 'AI의 활용'을 공통 주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1차시에는 기술가정, 체육 교과가 함께하여 'AI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었다. 2차시에는 영어, 사회 교과가 함께하여 'AI(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를 주제로 한 이중언어 토론 수업을 실시하였다. 작은 학교인 만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 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을 보조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배우기도 하였다.

1차시의 체육, 기가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요가 동작을 직접 찍어 AI 프로그램을 통해 판별해 보면서, AI 기술의 발전 정도를 가능해보고 동시에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이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었다. 2차시의 영어, 사회 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토론 수업을 위한 자료 수집을 Chat-GPT를 활용하면서 최근의 핫이슈 중 하나인 Chat-GPT를 직접 다루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며 영어 말하기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교육청,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지원

나주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지원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지치고 힘들었던 학생과 교직원들의 마음에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고, 학교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하는 8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대학교수와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META'와 함께 하고 있다. '앙상블 META'는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 예술단체로 고상하고 딱딱한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연주하는 팀이다.

이미 지난 4일에도 공산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공연이 진행된 바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junsol@junsol.com